

# 그림 감상하기 - 오르세 미술관

글 | 박희숙 그림작가



● 그림 1 ● 〈만종〉 1857~59년, 캔버스에 유채, 55×66, 오르세 미술관 소장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미술사조는 인상주의 화가들이다. 그들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곳이 파리에 있는 오르세 미술관이다. 오르세 미술관은 파리 한복판에 있는 센 강을 사이에 두고 루브르 박물관과 킬리 궁전과 마주보고 있는 아름다운 기차역이었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위해 세워졌던 오르세 기차역은 작품을 소장하는데 포화상태에 이르렀던 루브르 박물관 관계자들에 의해 19세기 후반 예술 작품들을 모아 놓은 미술관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된다.

오르세 미술관의 전시 목표는 1820~1870년 출생의 예술가들의 작품을 한 공간에 소개하는 것이다. 또한 19세기 후반에 싹뻗던 새로운 예술 양식에 대한 성찰을 표명하는 일이었다. 오르세 미술관은 회화는 물론 사진, 장식 예술, 건축, 영화에 이르기까지 한 분야에만 치중하지 않고 19세기 다양한 예술분야를 소개하고 있다.

오르세 미술관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밀레의 <만종>이다.

프랑스의 자랑인 <만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복제된 작품으로서 예술성이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너무 평범한 그림으로 치부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품이 주는 경건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부터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만종>은 남자는 모자를 벗고 여자는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석양에 물들어 있는 벌판은 전형적인 농촌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화면

오른쪽 여자의 뒤로 이득히 보이는 교회의 종소리에 농부들은 일손을 멈추고 기도하고 있다. 밭 밑에 감자를 캐다 그만 둔 썩이가 남자 옆에 있고 감자를 담아둔 자루가 있는 손수레, 그리고 여자의 앞에는 감자를 담아둔 바구니가 보인다. 노동자로서의 남자의 모습과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여자의 모습으로 상징되고 있다. 그 당시 남자와 여자의 역할분담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화면 중앙에 농부들이 있지만 전체 화면의 분위기와 동떨어지지 않고 어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장 프랑소아 밀레(1814~1875)의 <만종>은 그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그린 작품이다. <만종>은 1857년 유럽 미국의 화가 토머스 G 애플턴의 의뢰로 제작하게 되었지만 그가 인수하지 않자 여러 사람의 수중을 전전하게 된다. 1889년 경매를 통해 뉴욕에 있는 미국 미술연맹이 소장하지만 프랑스인들은 이 작품이 루브르에 소장하기를 바라게 되었다. 그 이후 치열한 분쟁 끝에 루브르 백화점 소유주가 1890년 그 당시 막대한 금액이었던 80만 프랑을 주고 사서 프랑스 정부에 기증함으로써 국제 분쟁을 해결한다.

<만종> 다음으로 오르세 미술관에서 꼭 보아야 할 작품이 마네의 <올랭피아>다. 이 작품은 그 이전에 신화나 성서 또는 역사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여성의 누드를 현실의 여인으로 묘사해 엄청난 스캔들을 일으켰다. 이 작품은 마네가 의식하지 않았어도 미술역사상 획기적인 전환점



● 그림 2 ● <올랭피아>-1865년, 캔버스에 유채, 130×190, 오르세 미술관 소장



# Orsay Museum

을 가져왔다. 살롱전에 입선한 작품(올랭피아)를 보고 비평가는 물론 대중들도 분노를 터뜨렸다. 입선은 마네로 하여금 더 큰 스캔들에 휩싸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올랭피아〉는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이다. 마네는 1856년 이탈리아를 두 번째 여행할 때 우피치 미술관에 있던 〈우르비노의 비너스〉를 모사했다. 그는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의 아름다운 여인을 밤의 꽃인 매춘부로 새롭게 해석했다. 마네는 〈올랭피아〉를 제작하면서 당시의 유행했던 유곽의 창녀의 모습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방금 옷을 벗은 듯한 여인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마네가 표현한 벌거벗은 여인은 사회가 감추고 싶은 처부였다. 그것을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해 비난을 퍼부었다.

‘올랭피아’라는 이름은 로마 교황 이노센트 10세의 정부 ‘올랭피아 말다치니 팜필리’가 근원이다. 그녀는 교황 이노센트 10세 동생의 미망인으로서 교황의 정부가 된다. 올랭피아는 교황의 정부로서 권력을 행사한다. 올랭피아는 그 이후 알렉상드르 뒤마의 소설 〈춘희〉에 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진다. 올랭피아는 춘희의 연적으로서 부끄러움을 모른 채 아름다운 육체를 팔아서 살아가는 창녀의 이름이다. 마네가 이 작품을 제작할 당시 올랭피아는 파리에서 창녀의 대명사가 되었을 정도로 대중들에게 익숙한 이름이었다.

전통적으로 비너스를 상징하는 꽃은 장미였는데 마네의 〈올랭피아〉에서 올랭피아의 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난초

는 사치와 여성의 성욕을 상징하는 꽃이었다. 목걸이와 슬리퍼만 신고 쪽 뺨은 다리 아래 음부를 손으로 가리고 있는 벌거벗은 여인은 고상하고 우아한 여신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모르는 파렴치한 여자였다. 더욱이 목걸이는 창녀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것이었다.

〈올랭피아〉는 화려한 꽃다발을 들고 있는 흑인 하녀와 대조를 이루면서 남성의 사랑을 원하는 여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 오른쪽 구석에 있는 검은 고양이는 발기된 남성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고양이는 1865년 살롱전에 출품하기 전에 덧 그려진 것으로 이 고양이는 마네의 추문의 상징이 된다. 전통적으로 검은 고양이는 악마의 의미를 암시한다.

마네는 〈올랭피아〉의 원제는 〈고양이와 함께 한 비너스〉였으나 시인 아스트뤼의 권유로 바꾸었다. 당시 〈올랭피아〉를 비웃고 비난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주먹을 휘두르고 지팡이로 후려치는 소동이 있어서 그림 앞에 3명의 호위를 내세워야만 했다고 한다. 당시 사람들은 마네를 보고 유명세를 타고 싶어 그런 그림을 그렸다고 비난했지만 마네는 매춘이 그 당시 성행하던 파리의 현실을 그대로 표현했을 뿐이다.

에두아르 마네(1832~1883)가 이 작품을 제작할 당시 작품의 모델인 빅토린 뫼랑은 19살이었다. 이 작품에서 그녀는 가슴은 성숙한 여인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엉덩이는 발달하지 못한 소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M)